

2015
-23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

2015.12.24(목)

작성자 : 부국장 김진홍, 조사역 박상우

최근 포항경제는 주력산업인 철강부문이 세계적인 공급과잉 지속, 중국의 성장둔화 및 성장패러다임 변화, 저가수출공세 강화에 따른 국내시장의 잠식 심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대미 강관수출 부진,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가 중첩되면서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철강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국가 전체 제조업의 근간인 기초소재산업으로서 수요산업의 성장(양적)과 생산구조변화(질적)에 의해 수요구조가 결정되는 데 향후 포항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데는 현재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은호성)는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지역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산업도시 포항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가늠하고, 지속가능한 실천적 성장전략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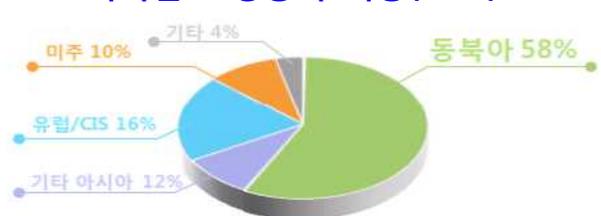
* 향후 발간 계획 : “산업도시 포항의 진단 및 향후 발전과제”(2015.12.28, 월), “향후 포항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본방향”(12.31, 목), “포항경제의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기술혁신제고를 위한 성장전략”(2016.1.5, 화), “포항경제의 실물 및 인적자본 확충방안”(1.8, 금)

[최근 세계 및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동향과 전망] ① 세계 철강산업 : 세계 철강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등 신흥국의 생산능력 확대와 수요침체로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계 조강생산능력은 23.5억톤, 생산은 16.6억톤으로 과잉설비가 7억톤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의 과잉설비가 절반 이상(4억톤)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계철강수요는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및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철강수요 급감(중국수요 증가율: '11 9.1% → '12 2.9% → '13 11.4% → '14 △3.3% → '15 △3.5)으로 1% 미만의 증가율('11 7.9% → '12 2.0% → '13 6.2% → '14 0.7% → '15 △1.7)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정체로 철강의 국제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조강능력 및 수요 추이



지역별 조강능력 비중(2014)



지역별 Overcapacity 규모(2014)



자료: world steel

한편 향후 세계 철강수요는 저성장기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성장 둔화, 개도국 수요 확대 등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조강생산능력은 2014년 현재 이미 세계철강협회의 2020년 세계철강수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12년~2020년중 연평균 설비능력 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공급과잉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철강수요 구조 변화 전망

구분	철강수요량 (2020)	연평균 증가율 (2011-2020)	원인
세계 전체	1,921	3.14%	신흥성장국의 철강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중국의 수요 감소로 증가율 둔화 예상
중국	833(43%)	2.8%	철강집약도가 낮은 산업으로 구조전환
OECD	430(23%)	0.3%	인구증가율 둔화
기타	658(34%)	5.2%	높은 철강집약도 및 인구증가율

세계 철강소비 투자 전망

	추가설비능력 (2012~2020)	설비능력 증가율 (2012~2020)	비고
세계전체	3억 3,200만톤	16%	설비용량의 증가는 2013년 5,800만톤 2014년 4,700만톤 2015년 1억 500만톤
인도	27%	81%	
기타 아시아	15%		
중국	14%		
중동	12%	41%	
남아메리카	11%	52%	
아프리카	9%	91%	
CIS	7%		
NAFTA	4%		
Europe	1%		

주: ()는 전체대비 비중
자료 : OECD(2013), 산업연구원

② **국내 철강산업**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중국의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여 대형 설비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요부진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요와의 갭(gap)이 확대되어 공급과잉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내수는 주요 철강 수요산업인 건설 침체, 자동차·조선의 생산 둔화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은 중국산 철강의 지속 증가, 소비구조 다양화로 증가(수입비중, 수입/내수 : '11 41.0% → '12 38.3% → '13 37.5% → '14 40.9%)하는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쟁심화로 정체(수출량, 백만톤 : '11 29.1 → '12 30.5 → '13 29.2)되고 있어 교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경영측면에서도 산업내 업종간 수익률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일관제철 2개사(포스코, 현대제철)의 영업이익률('12 7.4% → '13 6.8% → '14 8.4%)은 8.4%인 반면, 2개사를 제외한 기타 업체의 영업이익률('12 2.8% → '13 2.1% → '14 1.3%)은 1.3%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품질, 가격 및 납기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과 비교해 보면 봉강, 선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 대비 경쟁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가 급

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 대형 철강업체의 제품과 비교할 경우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인별 경쟁력 평가

품목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납기경쟁력		종합경쟁력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2011	100.0	94.2	100.0	109.1	100.0	95.7	100.0	99.0
2006	100.0	86.4	100.0	115.8	100.0	89.4	100.0	93.9

자료: 산업연구원, 한국철강협회(2006, 2011)

제품별 경쟁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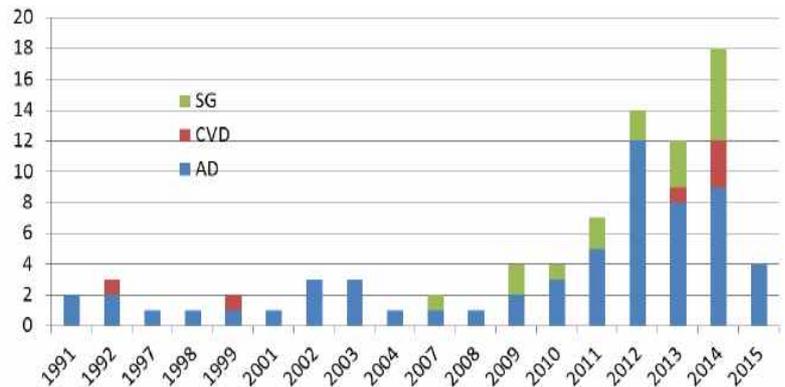
	경쟁열위 품목	경쟁이 심한 품목	경쟁우위 품목
2010	건축용 철강제품, 일반강재	일반강재	판재류, 고급/기능성 강재
2015	중소형 봉형강류, 중소형 강관	판재류, 강관, 형강 등	고기능성 강재, 특수강/합금강

자료: 산업연구원(2015)

수출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는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입측면에서는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 총 83건의 수입규제

중 2012~14년의 3년간 44건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4개국 61건이 규제/조사중에 있다. 특히 이러한 수입규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권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신흥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반덤핑(AD)이 대부분이나 세이프가드(SG)도 증가 추세에 있어 글로벌 철강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 공급여력 확대 및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일정 규모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차별적 수출 확대 및 고착화에 주로 기인하며 국내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철강재의 무역규제 피소 추이



주: 조사개시 시점 기준
자료: 산업연구원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국내 철강수요의 경우 1~2%대의 낮은 성장(철강수요 증가율: '80년대 13.7% → '90년대 6.0% → '00년대 3.2% → '11~'14 1.5%)이 예상된다.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는 건설부문의 철강소비는 둔화/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철강수요산업의 생산활동도 낮은 증가율이 전망된다. 또한 소재 대체에 의한 철강투입 원단위의 감소도 철강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설비능력의 경우 현재 8,740만톤 수준에서 2020년에는 9,45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계획 (판재류 : 현재 설비수준 유지, 봉형강류 : 합리화(철근), 신설투자(선재) 등으로 증가)되었으나, 최근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설비투자 계획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구조 전망



주 : 업체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산업연구원(2011)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위상과 특성] 2014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출액은 82.1조원, 부가가치액은 20.1조원으로 국내 전체 산업생산에서 6.2%(비철, 조립금속 포함시 1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2010년 이후 생산('10년 7.0% → '12년 6.9% → '14년 6.2%) 및 부가가치('10년 2.2% → '12년 2.0% → '14년 1.9%)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철강산업의 위상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산업별 생산액 비중 (%)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45.2	45.4	45.5	49.0	50.4	48.7
자동차	9.2	8.7	10.7	9.5	9.9	10.3
조선	2.3	3.0	3.2	4.9	4.8	4.1
기계	7.3	6.3	6.9	7.0	6.8	7.0
전기기기	2.5	2.9	3.2	3.4	3.4	3.2
철강	9.6	5.7	6.8	7.0	6.9	6.2
비철금속	1.9	1.8	1.8	2.4	2.4	2.2
조립금속	3.9	3.8	5.7	5.7	5.6	5.6
자본재	22.9	22.4	26.0	26.8	26.7	26.5
소비재	16.7	13.3	11.0	10.2	9.8	10.8
중간재	45.9	41.8	41.9	42.8	44.9	43.2
IT제품	7.3	11.8	9.9	7.1	6.2	6.8
IT부품	7.1	10.7	11.2	13.2	12.4	12.7

자료 : ISTANS / 한국은행(2015)
주 : 산업(군)별 비중은 제조업내 비중을 의미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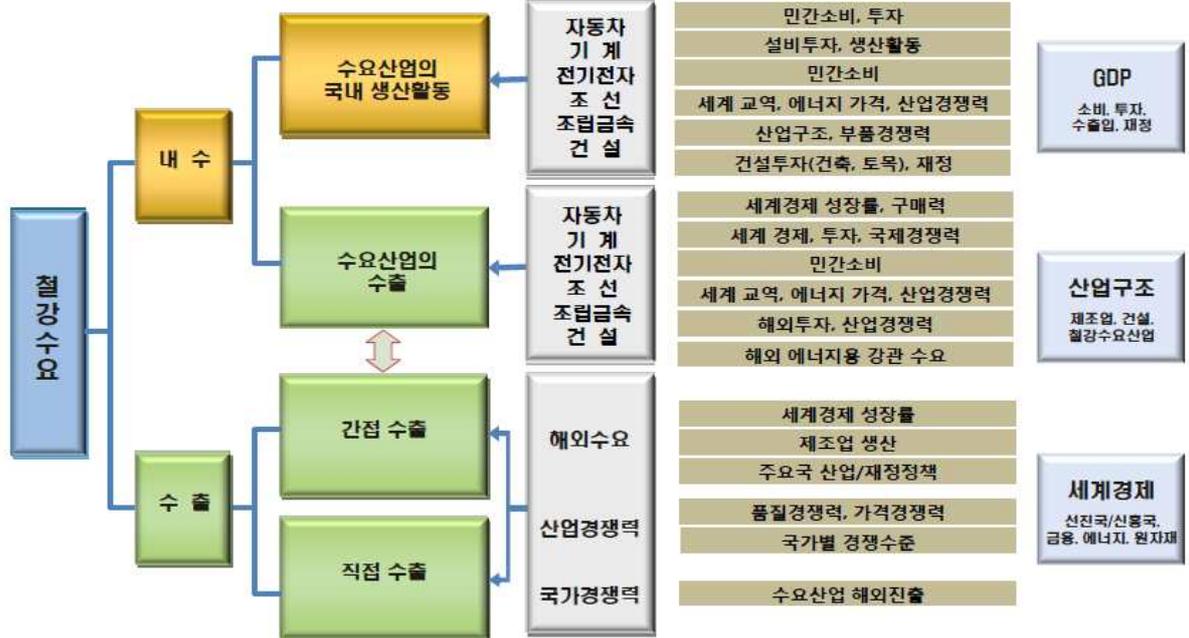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26.7	29.0	28.3	30.7	31.0	30.3
자동차	2.5	2.4	2.5	2.9	3.1	3.2
조선	0.8	1.2	1.1	1.9	1.7	1.5
기계	2.1	2.3	2.3	2.6	2.7	2.5
전기기기	0.7	1.0	1.0	1.1	1.1	1.1
철강	2.2	1.7	2.1	2.2	2.0	1.9
비철금속	0.4	0.4	0.4	0.5	0.5	0.4
조립금속	1.2	1.6	2.0	2.1	2.3	2.3
자본재	6.6	7.5	7.6	9.1	9.3	9.1
소비재	3.8	3.4	3.0	2.9	2.9	2.9
중간재	12.0	11.8	11.6	11.8	11.9	11.5
IT제품	2.0	3.2	2.7	1.9	2.0	2.1
IT부품	2.3	3.0	3.4	4.9	4.9	4.8

자료 : ISTANS / 한국은행(2015)
주 : 산업(군)별 비중은 제조업내 비중을 의미

한편, 철강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기초소재산업이라는 특성상 철강의 수요는 주요 수요산업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즉, 철강산업의 수요구조는 수요산업의 성장(양적)과 생산구조변화(질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산업(최종재, 중간재)의 생산성, 효율성, 가공성 등에 대응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산업의 제품구조, 제조방식, 경쟁력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강은 공정변화 주기가 길고 공급자간 경쟁이 치열한 장치/자본집약형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보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며 위기시에 설비 폐쇄나 해외이전이 자유롭지 못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다.

[철강산업의 발전동인과 제약요인] 철강은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중간재인 금속가공제품, 최종재인 전기기기, 정밀기계,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가전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생산과 해외로의 직·간접 수출에 의해 그 수요가 결정된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철강산업



따라서 향후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과의 동반 성장전략이 주요하며 부품(조립금속), 수송기계 등 새로운 수요산업의 성장 및 건설, 민간-건축 회복도 필요하다. 또한 주요 산업의 철강소비 비중 변화, 즉 수요 다양화, 소재 다양화 요구 등에 대한 적기의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수요산업별 주요 트렌드

구분	2012년 철강수요	주요 트렌드	2025년 철강집약도 (2012년 대비)
수송	1억 8천만톤	- 재료 경량화에 대한 니즈가 성장(특히 유럽의 자동차 시장) - 철강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자동차 집중	85~90
건설	6억 7,200만톤	- 도시화/초고층빌딩 수요증가가 철강 집약도 상승 - 철강 손실 감소를 위한 기계화 - 고층 빌딩/부분생산 늘어나 구조용강재 수요 증가	105
기계 장비	3억 5,600만톤	- 수요와 공급 증가를 신흥국이 주도하면서 유럽 비중 감소 -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	~100
금속 제품	1억 5,500만톤	- 가전제품의 신소재화가 있으나 STS가 주요 소재	~100
에너지	9,100만톤	- 철강집약도 높은 새로운 기술(세일 등)과 심층수탐광 증가 - 수요와 생산의 변화로 새로운 배관파이프 수요가 증가	100~105
조선	6천만톤	- 현재 설비과잉으로 인해 감소 - 선박대형화로 인한 철강집약도의 하락	95~100

자료 : OECD·Mckinsey(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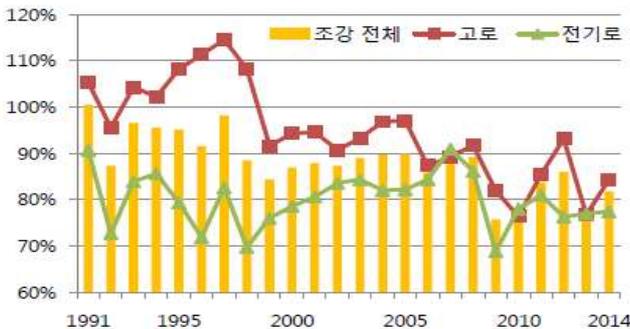
주요 수요산업에서의 소재요구 변화와 철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자동차	조선	건설
수요	금속투입 원단위 감소, 소재 가공도 향상 요구 증가 가공성, 내식성, 내지문성, 미려성 향상	고장력강, 고기능강 수요 증가 고강도화, 저온인성 강화 저마찰강, 하이브리드소재, 용접성, 내부식성 강재 수요 증가	합성·복합공법용 고기능성 강재, 고내진성 고강도 수요 증가 유닛 모듈용 경량화·고강도 강재 수요 증가
제도·규제	경량소재 투입비중 증가 (비철금속, 복합소재 등) Cr-Free 강판 철강 적용 영역의 축소 (외판, 내장부품 소재 변화), 복합소재투입증가	저마찰강, 하이브리드소재, 용접성, 내부식성 강재 수요 증가 내한성, 극저온, 고강도, 내부식성 향상	친환경소재, 저탄소소재, 고강도, 내한성, 내열성, 고단열성 강재 수요 증가 내한성, 극저온, 고강도, 내부식성 향상
기술	금속소재 투입감소 경량소재비율 확대	경량화, 소재 실수율 증가 고장력강, 기능성 강재 수요 증가 고압,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 증가	다양한 규격/형상의 강재 수요 증가, 유닛·모듈용 금속제품 수요 증가 미려성, 기능성 소재 수요 증가, 복합소재 수요 확대 고기능성 복합소재 수요 증가

자료 : 산업연구원(2013)

특히 공급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설비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가동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품목별 가동률 및 국제경쟁력 격차, 공급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철강가동률 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2013), 한국철강협회

주요 품목별 가동률

구분	2013	2014	2015e
철근	70.1	72.2	75.1
형강	73.0	75.0	75.0
아연도강판	76.0	80.1	80.1
후판	63.4	69.4	79.1
특수강	93.2	86.8	86.8
강관	47.9	59.7	50.0

자료 : 산업연구원(2013), 한국철강협회

한편 우리나라의 철강수급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대비 수입비중이 24.1%, 생산대비 수출비중이 42.7%(‘15.1~9월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외 여건에 의한 변동성을 높여 경영 안정성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철강 수출입이 국내 수급의 보완 요인이 아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출 측면에서는 한중일간 경쟁심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시장차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입 측면에서는 저가 일반강재와 특수강재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 수입/내수 비중



자료 : WSA

국내산 내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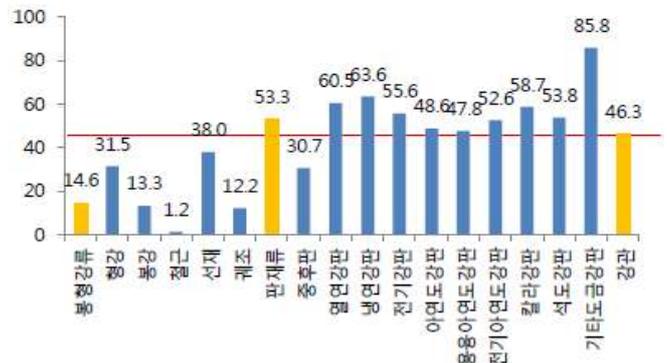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철강협회

강종별 수입/내수 비중



자료 : 한국철강협회

강종별 수출/생산 비중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감안할 때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재의 소비는 주로 수요산업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재의 변화는 중간재, 기초소재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제품의 제품/공정 변화에는 수개월~3년이 걸리는 반면 철강 등 기초소재의 생산 방식, 설비능력의 변화에는 10~30년 이상이 소요된다. 때문에 무엇보다 수요산업과 소재산업간의 time lag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생산방식, 설비능력의 변화**가 긴요한 것이다. 또한, 철강의 경우 수요산업의 성장(양적), 생산구조변화(질적)에 의해 수요구조가 결정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요산업(최종재, 중간재)의 생산성, 효율성, 가공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산업의 제품구조, 제조방식, 경쟁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철강의 경우 자원으로서의 유효성과 재활용률이 높아 **소재로서의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과잉설비와 산업구조 조정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품목 특화/고도화, 신규투자에 대한 산업계 인식공유를 통해 제품생산 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산업의 발전방향, 국제경쟁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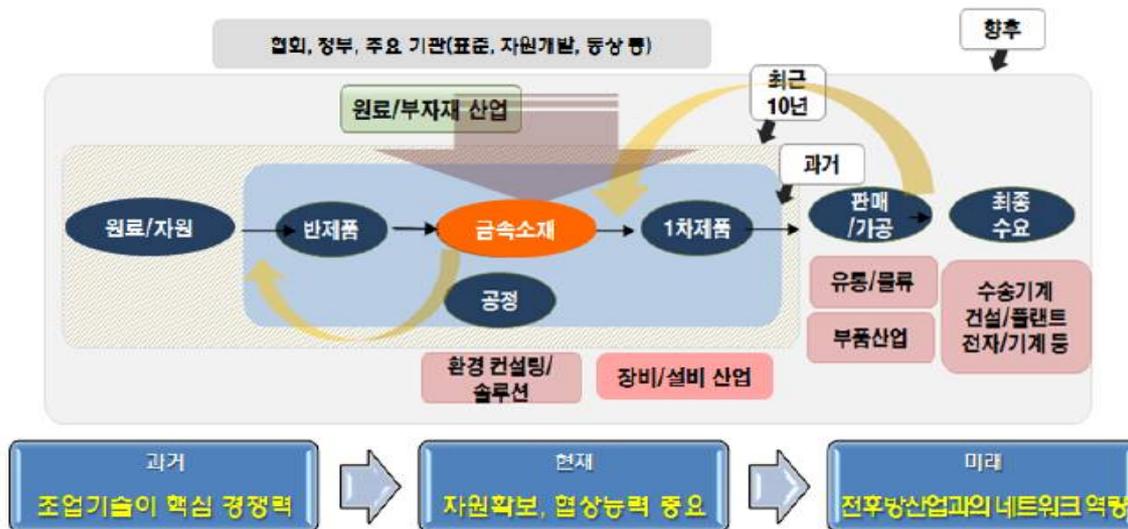
한 투자/경영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기초소재는 공정효율성, 품질, 국제시장 경쟁력이 산업 발전을 좌우하며 경기변동과 수요변화에 대해 공급탄력성이 낮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대량생산체제(Mass Production)에서 수요 최적화 생산시스템(Mass Customization)으로 최종적으로는 수요 창출형 생산시스템(Build to Order)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산업계 및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산업계와 국가간 협업을 통해 투자 및 생산전략을 결정할 때 전후방산업의 전망 및 시장규모, 경쟁력 요소조건의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 자동차, 부품, 기계, 가전 등의 산업성장주기와 소재 투입패턴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소재대기업(원료, 소재)-가공중소기업(부품)-최종수요대기업간 동시적 협력·연계, 금속산업(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산업/기술정책 대상의 확장(철강-비철금속-조립금속-기계/부품 등) 등 산업생태계의 확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종재산업-부품/모듈 부문에 대한 융합을 강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소재공급-가공 업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수요산업의 국내/해외 생산구조 변화 등 수요세분화 대응 역량 강화, 수요연계형 제품개발-공급체제 구축,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의 병행추진 등 기술개발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금속소재의 기술혁신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차금속산업·금속제품제조업은 제조업 GDP에서 15%를 차지하는 반면 금속관련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R&D 예산의 5%에 불과한 실정(그중 72%는 수송기계 부문에 집중)이다. 따라서 금속소재의 기술혁신을 위한 R&D투자 확대를 통해 전기차, 해양플랜트, 고밀도 건물 등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강종개발 지원과 선제적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수요전인 구조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선제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해외 제품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철강수요산업에서의 소재요구변화 예측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고 혁신활동의 성과가 엔지니어링, 장비 등 연관산업과의 동시적 R&D를 통해 산업생태계 내 참여 주체 모두에게 공유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 생태계 확장방안



둘째, 산업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구조조정 포함)**를 위한 **산업계 협의체 활성화**, 산업온실가스배출 부담금, 공정거래법 등 **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적정규제, 복합규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

셋째, 통상압력 강화와 교역구조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품개발-공급체제 구축**을 통해 **무역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등 **성숙단계 산업에 대해서도 생산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지역 및 제품에 대한 국내 업체간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국내 수입에 대한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규제 및 이행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회 안전을 위한 국내 철강제품의 표준 제·개정(중량 →성분, 성능)과 행정처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유입 덤핑제품에 대한 적극적 대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자료: 산업연구원 정은미, “포항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방안”, 철강도시포항의 미래발전전략, 2015.12.16.

이 자료는 한국은행,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은행 포항본부 조사연구담당
(전화 054-289-2821~3, FAX: 054-289-2850, pohang@bok.or.kr)